

# “라돈 측정기회 확대 등 대책 필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7일 라돈(Rn) 실내농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체 라돈 측정자료 중 37%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측정기 대여 사업을 통해 생활공간의 라돈 농도를 확인, 개선할 수 있었지만 라돈 관련 정보와 대응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등 관계기관은 라돈 측정기회를 확대하고 기준치 이상 검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돈 측정기를 확대 보급하고 측정결과를 수집·분석해 안

## 광주환경연합, 175건 중 37% WHO 기준 초과

### “측정기 보급 확대·기준치 초과 품목 공개”

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법률이 정한 최소 측정횟수만 채우거나 개선 권고에만 그치지 말고 생활방사능과 관련한 종합 관리체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차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을 통해 모은 측정결과 175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

다.

측정 대상은 매트리스·라텍스·침대·온수매트 등 침구류와 기능성 제품, 주거 공간이었다.

조사 결과 175건 중 65건(37%)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100베크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라돈 실내농도 기준치인 148베크렐(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18%에 해당하는 33건이었다.

특정 라텍스 제품에서는 공동주택 라돈 농도 기준치(200베크렐)의 20배에 달하는 3600베크렐이 측정됐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측정된 제

품은 대부분 라텍스와 침대 매트리스였다.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제품은 대부분 자진 폐기했으며, 제품 교환은 소수에 그쳤다.

측정기 대여자를 상대로 발인 설문조사에서는 기준치 초과 제품 품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절반이 생활방사선 콜센터·인터넷 신고창구에 대해 알지 못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라돈 측정기 대여사업은 측정기기 부족으로 대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성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조인호 기자

## 술에 취해 응급실서 행패 취객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로 김모(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5분 동안 의료진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을 만류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 A(27)씨의 뺨을 1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민취한 김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3시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났으며, 의료진이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 병원에 있는냐며 격분,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취객이 길가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보 호조치의 일환으로 길에서 자고 있던 김씨를 병원 응급실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황금박쥐 동상 노린 일당 미수 뒤 도주

합평의 한 생태전시관에 전시 중인 쇠가 80억원대 상당 황금박쥐 동상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일당이 건물에 침입하려다 도주했다.

15일 합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5분께 합평군 합평읍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이 공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다.

이들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절단기(후정)와 망치를 들고 전시관 침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절단기로 출입문 외부 철제 셔터의 자물쇠를 끊었으나, 셔터문이 열리면서 작동한 경보음을 듣자 도주했다.

출입문 주변에는 이들이 유리를 깨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망치가 발견됐다.

이들 중 1명은 타고 온 차량을 몰고 달아났으며 다른 2명은 도보로 이동했다. 경찰은 특정 지점에서 다시 만나 차량을 타고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한 망치에 대한 감식 결과에서는 지문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생태전시관 내 전시 중인 황금 162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 동상 등을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시관 안팎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영상 등을 확인하며 이들이 탄 차량을 찾고 있다.

합평=김광훈 기자

## 여수 거문도 해안절벽서 녹슨 포탄 발견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해안절벽에서 녹슨 포탄이 발견돼 해군 3함대 폭발물 처리반(BOD)이 출동해 수거했다.

15일 해군 3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거문도에서 약초를 캐던 주민이 해안가 절벽에서 포탄 형태의 녹슨 철 덩어리를 발견해 거문도 주둔 해군부대에 신고 했다. 이어 해군 3함대는 신고자와 현장까지 동행해 녹슨 포탄을 확인했다.

군부대 확인결과 발견된 장수는 거문도 끝단의 임벽지형으로, 발견된 물체는 오랜 시간이 흐른 포탄으로 판단됐다.

해군 3함대 폭발물 처리반(BOD)은 14일 거문도에서 안전을 위한 1차 신관 처리를 마친 후 인근 부대로 폭발물을 옮겼다.

여수=송기홍 기자

## 초등학생 장난전화에 경찰 출동 소동

“학교에 흉기를 든 남자가 있다”는 초등학생의 장난전화에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또 신고이후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강력반 형사를 중심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초등학교는 경찰서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현장에 곧바로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흉기를 든 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된 경찰은 이 학교 A(8)군이 허위신고 한 것을 파악했으며 주의를 준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 전남경찰청, 조합장 선거사범 91명 단속

### 금품살포 비중 높아

전남경찰청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91명을 단속했다.

전남경찰청은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총 68건, 91명을 단속해 이중 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했으며 78명 수사, 종결 10명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금품제공이 55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속선진 21명(23%), 사전선진 7명(8%) 순이다.

금품제공도 95명에서 55명으로 제회에 비해 40명 줄었지만 후보자간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14명에서 21명으로 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금품선거가 줄었지만 선거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간 비방이 증가하는 점도 당선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 주는 것 같다”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간임을 감안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17일 오후 서울 중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19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집회에 참가한 어린이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덜 추운 겨울 덕’ 한랭질환자 11.1% 감소

### 행안부,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 발표

올겨울 한랭질환자가 최근 5년 연간 평균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근했던 날씨 덕이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8년 11월15일~2019년 3월15일)에 추진한 대설·한파 종합대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 금액이 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최근 10년 간 연평균 피해액(257억9000만원)과 견주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404명 발생했고 이중 10명이 숨졌다. 2013~2017년 5년 연평균 454.2명에 비해 11.1%가 감소한 수치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올겨울 자연재해 피해가 급감한 데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눈이 적게 내렸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기상 특성을 분석해보면 눈이 내린 날이 12.2일로 평년(1981년~2010년

평균)보다 4.7일 적었다.

최심적설(해당 일에 관측된 적설량 최고치)도 2017년도에 비해 적었다.

지역별로는 울릉도와 강원도가 각각 31.3cm, 17.1cm로 2017년의 162.8cm, 21.2cm 기록보다 적었다.

평균 기온은 1.3도로 평년의 0.6도보다 0.7도 높았고,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도 평년의 75% 수준(66.5mm)에 머물렀다.

김 실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을 계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